

ExxonMobil 2위에 BP 5위 부상

Business Week, 시가총액 1위 GE ... 삼성전자는 1004억달러로 32위

General Electric(GE)과 ExxonMobil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1200대 글로벌기업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Business Week 12월26일자에 따르면, GE는 시가총액이 3774억달러, ExxonMobil은 3611억달러로 부동의 1위와 2위를 지켰고 뒤를 Microsoft(2946억달러), Citigroup(2456억달러), BP(2362억달러) 등이 이었다.

한국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1004억달러로 2004년 48위에서 32위로 뛰어오르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은행(221억달러)은 2004년 438위에서 273위로 올라섰고, 현대자동차(218억달러)도 446위에서 277위로 뛰어올랐다.

이밖에도 SK텔레콤(391위), 신한금융지주(507위), LG전자(606위), KT&G(821위), 삼성화재(944위), 현대중공업(967위) 등이 순위에 들었다.

<화학저널 2005/12/19>